

20세기 한국 혼례(폐백) 예복 변천에 관한 고찰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A Study of the Changes in the Wedding Costume for Pyebaek during 20th Century

Na-Young Ho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1. 14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Wedding costume for Paebak(Hyunkugorye) in Westernizing Korean society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this study, I analyzed the related literature for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hotographs, while I used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of 116 photographs for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t is obvious that bridegroom and bride wore the same clothes for Hyunkugorye and the formal wedding ceremon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hotographs, wonsam was rather more widely used than hwalot as the bride's wedding costum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But there were many changes starting from the early 1970s. The changes were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style and became more decorative and somewhat crude: that is, people began to embroider wonsam and the piping was added to the collar of danryung. All these changes resulted from the pursuit of commercial interests with the misunderstanding of and the indifference to traditional beauty, while Korean society had experienced the Japanese rule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refore, to establish appropriate wedding culture and costume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ducate people who get involved in wedding business for traditional wedding culture and clothes, because nowadays most of bridegrooms and brides borrow ceremonial costume for Hyunkugorye.

Key words: wedding, Wonsam, Danryung, Pyebaek; 혼례, 원삼, 단령, 폐백

I. 서론

지난 20세기는 한국복식문화의 가장 큰 획을 긋는

시대였다. 한국사회는 서구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一生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혼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물론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¹⁾ 전통혼례품전시회와 전통관혼상제 의식재현행사²⁾가 개최되고, 각 대학이나³⁾ 지방에서도 민속혼례식이 거행되는 등⁴⁾ 다양한 행사가

* 본 연구는 1997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치워지고 있으며 전통혼례를 올릴 수 있는 장소도 전에 비해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⁵⁾,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생활문화와 마찬가지로 서구식 혼례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상태이다.

다만 서구식 혼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전통혼례의 절차 중 “함반기”로 알려진 납폐(納幣)와 현구고례만큼은 아직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현구고례(見舅姑禮)란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가친척에게 처음으로 큰 절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를 위해 신부가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 이를 폐백이라 한다. 오늘날에는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혼례날 예식장 폐백실에서 예를 치루게 되는데, 이것이 혼례절차 중 신랑신부가 전통예복을 입고 치루는 거의 유일한 의식이다. 하지만 혼례식과 혼례에 관련된 준비가 각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에서의 역할은 줄고 대부분의 준비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이에 따라 혼례복도 대여복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혼례복으로 궁중복식을 대여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볼 수 있다⁷⁾. 최근에는 특급호텔에서의 혼례가 허용되고⁸⁾ 혼례관련비용이 연간 12조원이나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⁹⁾. 하지만 현재 대여되고 있는 예복이 전통양식에서 벗어난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전통이란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며, 원형 그대로의 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전통적 요소가 어떠한 지향점을 추구하며 변화하는지는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방향이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학문적 바탕에서 이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할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본다. 이에 현구고례시 예복의 변화시기와 내용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전통혼례나 현구고례복식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미래 사회의 다른 생활문화와 복식문화의 규범 창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이에 오늘날 전통복을 입고 치루는 유일한 혼례예식인 현구고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혼례사진은 그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신식혼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문헌 고찰은 주로 20세기 전반부에, 사진분석은 20세기 후반부를 주로 다루게 되었다. 문헌은 「增補四禮便覽」(1900) 「廣禮覽」(1893), 「懸吐註解 四禮便覽」(1924) 등과 혼례복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제 이후 현재까지의 현구고례 예복에 관해서는 문헌자료가 매우 부족하기에, 1920년대 이후의 115점의 혼례사진을 수집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해석을 하기 위해 내용분석법에 의해 고찰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자료에 대한 질적분석을 주로 하는 복식사 분야의 전통적 연구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수량적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Paoletti(1982), Tong(1984) 과 안춘순, 최세웅과 김민자(1993) 김찬주와 장인우(1999) 등에 의해 자료와 해석에 있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이 검증된 바 있다.

II. 현구고례 복식의 문헌고찰

조선시대에 있어 혼례는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라 의혼(議婚)·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육례(六禮)¹⁰⁾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육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당시의 생활과 맞지를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례편람(四禮便覽)」(1884)이 편찬되면서부터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

1) 이은주(1996), “전통의례복식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도서출판 신유, p. 229-238.

2) 조선일보, 1999. 5. 8. 전통관혼상제의식재현.../조선일보, 1999.10. 22. 고종 명성황후 결혼식 재현.

3) 조선일보, 1999. 5. 15.

4) 조선일보 1999. 5. 4. 전남낙안축제 30일개막/합동민속혼례식도 올려.

5) 조선일보, 1999. 3. 8/7. 25

6) 조선일보, 1999. 3. 8. 결혼준비대행 2백업체성업(새호름)

7) 스포츠조선, 1999. 4. 8. 궁중복식 혼례의상출시.

8) 동아일보, 1999. 8. 3. 복지부 특급호텔 결혼식 9일부터 허용

9) 조선일보, 1999. 7. 1. 혼례관련직접비용 연간 12조원

10) 「士婚禮」에는 육례로 되어 있다.

(納幣)·친영(親迎) 등으로 간소화된 절차가 사서인(士庶人)들간에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이 절차도 세부 사항은 지방이나 가문마다 그들의 지위와 생활에 맞게끔 적당히 변형되어 실시되었다. 이후 「增補四禮便覽」(1900), 「懸吐註解 四禮便覽」(1924) 등을 비롯한 각종 예서가 20세기 초에도 집필되어 당시의 혼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증보사례편람」(1900)에서 조선조 말의 혼례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혼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순으로, 친영의 순서는 초례를 치르고 신부집으로 가서 전안례를 드린 후 우귀를 하여 신랑집에서 교배례를 드리고 화축을 밝힌 후 다음날 현구고례를 드리며, 그 사흘후 사당에 고한 다음 사위가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靑見婦之父母의 순으로 진행된다¹¹⁾. 현구고례의 신부 복식은 초례와 별 차이가 없다¹²⁾.

즉, 시부모를 뵈 때는 醮禮 때의 옷과 같지만 衣에서 단을 없앤 점만 차이가 있으며 이를 宵衣¹³⁾라고 한다. 머리에 쓰는 冠도 관례 계례의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¹⁴⁾. 하지만 현구고례의 준비물에

단의(袿衣)와 피(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함께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피는 몽두의(蒙頭衣: 몽두리)의 소매 없는 배자와 같은 것¹⁵⁾이라고 하여 소매 없는 장배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대로 시행했는지의 의문이다. 「與猶堂全書」(1818)에 따르면 현구고례에 소의를 입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옷으로 대체할 수 있다¹⁶⁾고 하므로 1900년대 이전에 다른 옷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24년 편찬된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신부집에서 전안례와 교배례를 연이어 치른후, 우귀(于歸) 즉 색시가 처음 시집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하며 이때 폐백을 드린 다음, 색시의 본가로 가서 화축의 인연을 맺고, 사흘 후에 신랑집으로 아주 간다. “비록 가난하여 냉수 떠 놓고 혼인례를 행한다하더라도 전안하고 교배하고 시부모를 뵈는 일은 폐할수 없다.”¹⁷⁾고 하여 예서의 모든 절차를 다 행할 수는 없어도, 전안례와 교배례 그리고 현구고례는 혼례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귀시의 내용을 보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뒤에 색시가 바로 따라가되 ...수모가 잘 차려입고 대추상자를 시아버지 앞에 드린 뒤에 색시를 인도하여 잘 재배하게 하고, 수모가 또 포를 시어머니 앞에 드리고 색시를 인도하여 재배하게 한다. 수모가 술을 따라 색시 손을 거쳐서 시부모 앞에 드리고 (시아버지는 사모와 단령 시어머니는 엄태(掩髻:가리마)와 단의(袿衣:원삼) 혹은 개자(髻子:낭자), 화관(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을 착용한다. 신랑집 가

11) 「증보사례편람」(1900)에는 초례시 신부 복식으로 족두리, 준의, 염의, 피, 군(裙), 삼자(衫子)를 준비할 것을 기록하였다. 문옥표의(1999), 「朝鮮時代 冠婚喪祭(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 “색시는 일찍 일어나 잘 차려 입고 뵈기를 기다리는 데 이때 관(冠)을 쓰고 소의(宵衣)를 입는다. 이 때 머리에 쓰는 관은 계례 때와 같은 것으로 한다....(중략).... 소의는 초례 때 입는 염의와 같지만 단지 연(緣) 장식에 없는 것이며, 소의가 없으면 대의(大衣) 장군(長裙)을 입어도 무방하다”. 앞 글, pp. 161-163.

13) 소의: 띠가 달리는 것으로 만드는 법은 앞의 초녀조항 염의에 조이는데 다만 단을 치지 않는다. 소의가 없으면 대의장군(大衣長裙)으로 한다. 만드는 법은 제례 삭참조항에 보인다.

◎ 「사혼례」 소 : 준의와 같다. 이것도 단의이다.

◎ 단의 만드는 법은 뒤의 제례 습의조항에 보인다.

◎ 피는 앞의 초녀조항에 보인다.

◎ 관이하는 색시의 盛服이다. 문옥표 외(1999), p. 183.

14) 계례·관례 진복조항: 관(冠:족도리):중국의 봉관(鳳冠)으로 命婦의 복식이 된다. 세속에서는 화관이 라고 한다. 문옥표 외(1999), p. 84.

15) 피는 빛깔있는 겹(縑: 합사(合絲:끈실)로 짠 비단)으로 만드는데, 만드는 법은 싹을 여미지 않고, 소매가 없으며, 겹이 열려 있으며; 길이는 치마와 같고, 양 옆과 끝에는 모두 단을 치니...(중략) 중국의 부인이 옷 위에 걸치는 것으로 하피(霞帔)라 하니, 명부복(命婦服)이다.

16) “소의란 초의(紉衣: 얇은 옷)인데, 그 옷은 치의(純衣: 검은 옷)보다 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소매가 좁고 긴 옷옷을(방언에는 당의(唐衣)) 입고 시부모를 뵈도록 한다”. 「與猶堂全書」, 문옥표의(1999), p. 204.

17) 「현토주해 사례편람」 관례 혼례편, 문옥표의(1999), p. 181.

족 일등에게 세대별로 차례로 상견례를 행한 후 (색시가 시부모를 뵈은 후에 화관, 낭자에 원삼을 입되 가난한 집에서는 원삼을 쓰지 않는다.) 색시의 계례를 행한다. 색시가 두 쪽을 풀고 일반 부녀자의 쪽과 같이 빗질하여 묶고 시부모는 예물을 내리니....”

라고 하여 시부모도 성장을 하고 신부는 원삼을 입고 남자쌍계를 하였다. 또한 특별한 예복으로 무지기와 스란치마를 입었다¹⁸⁾. 그런데 이러한 것도 “모두 부자집의 지나친 의식절차이니 일반 혼인하는 집에서 통행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형편에 따라 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영의²⁰⁾와 단의²¹⁾는 문헌에 이름만 나올 뿐 註의 내용으로 보아 활옷이나 당의, 원삼 등으로 대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초례와 현구

고례에 겹관(袷冠:숨을 두지 않은 것) 혹은 화관(楛족도리)를 쓴다고 하며, 족두리나 화관을 쓰기 위한 첩지, 수증(垂纒, 속칭 ‘앞줄’)이라고 하는 앞댕기, 용잠(籠簪)등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신랑의 예복으로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혁대(革帶), 흑화(黑靴) 등이 있다²²⁾. 조선초기만 해도 유관자만이 사모와 품대를 하고 직함이 없는자는 입(笠)을 착용하고 조대(條帶)를 띠었으나²³⁾ 후기에는 일반이 사모 단령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신랑의 복식으로 “강사포(絳紗袍: 붉은 비단 도포) 즉 연홍색, 분홍 관대를 입는데, 첫 장가를 들 때에는 붉은 색, 재혼이나 세 번 장가가는 경우에는 검은색 단령을 입는다”고 하여²⁴⁾ 사모 단령을 입는 것은 같지만, 초재혼에 따라 단령색에 차이를 주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관복 색의 계급적 의미가 사라졌음을 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광례람(廣禮覽)」에는 혼례제구(婚禮諸具)로 사모(紗帽)와 함께 이엄(耳掩)과 서대를 기록하고 있어 겨울에 혼례를 치를 때는 사모 밑에 복건이나 이엄류를 착용하는 것도 전통 양식의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20세기 초 현구고례의 예복은 초례와 큰 차이가 없고 신부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항이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서구식 혼례가 나타나기 시작해 「현토주해 사례편람(1924)」에는 “요즘 행하는 신식혼례”라 하여 천도교와 예수교회의 혼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는 관례를 제외한 혼상제례가 대폭 간소화되었다²⁵⁾.

1935년에 충남지사가 간행한 「儀禮規範」 역시 전통혼례만이 아니라 사원이나 교회당에서 하는 혼례까지 설명하고, 그 복식은 전통복식과 양복은 물론

18) 문옥표의(1999), p. 180.

19) “색시가 혼례 때에 또 특별한 예복이 있으니, 즉 통근(桶裙: 무지기)은 대어섯단 혹은 일곱 여덟 단을 다홍 치마 안에 끼입는 것이다. 그 모양은 제일 끝단은 다홍 혹은 남빛으로 하되 맨 먼저 입는 것은 치마와 가지런하고 그 다음은 차차 짧아져서 맨 마지막 단은 그 길이가 불과 두어치이다. 또 슬안호(膝按席)((자주술안))라고 이름하는 것이 있으니, 안은 남빛이고 밖은 자주색인 겹치마이다. 붉은 치마 위에 입고 예를 행할 때에 쓰고 계례 후에 벗는 것이다.” 문옥표의(1999), pp. 181~82.

20)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영의(裋衣)는 활옷이며, 만드는 법은 소매가 넓고 결이 터져서 대개 예전의 중치마와 같은데, 붉은 공단으로 바탕을 하고, 찬란하게 수를 놓은 것이니, 신랑 색시가 맞절 할 때와 시부모 뵈 때에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여 홍장삼이 활옷이었을 가능성과 혼례에 활옷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1)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단의(襟衣)를 설명하기를 속칭 ‘당의’. 한 벌, 색시가 시부모를 뵈은 후에 입는 것이다. 그 생김새는 연두색 비단을 바탕으로 하고 소매가 넓고 긴 치마에 영의와 비슷하되, 무늬가 없다(현재의 원삼).”라고 하여 단의가 당의인지 원삼인지 불확실하나 의복의 모양으로 보아 원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2) 홍나영(1999),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례복(관·혼·상·제)의 전망과 발전」, 한복 입는 날 선포 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복사랑 운동협의회, p. 29.

23) 「經國大典」, 卷三. 禮典 朝儀

24) 문옥표의(1999), p. 176.

25) 이은주, 전통의례복식의 변천, pp. 229~238.

〈표 1〉 연대별 사진의 분포

	20년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
흑백서구식혼례		4	3	8	11				26
흑백전통혼례	1	4	3	4	7	3			22
칼라현구고례						35	20	13	68
합계	1	8	6	12	18	38	20	13	116

〈표 2〉 신랑예복 분석항목

신랑 예복															
연도	사진		의례		단령		흉배					관모		양복노출	
	흑백	칼라	교배례	현구고	남색	자색	파이핑	정방향	역방향	화문양	호문양	용문양	보		사모

〈표 3〉 신부예복 분석항목

신부 예복																		
연도	사진		의례		원삼			활옷	당의	흉배	보	대대			댕기		예모	
	흑백	칼라	교배례	현구고	전통형	비전통(자수)	목단					봉황	문자	금박	은박	자수	금박	은박

일본복식까지 규정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하게 한다²⁶⁾. 이렇게 도시에서 대부분의 혼례식이 신식 즉 서양식으로 치루어지면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흰 한복에 양초를 녹여 만든 굴꽃 장식의 화관과 베일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²⁷⁾. 이러한 모습은 50년대까지도 매우 일반적인 신식혼례의 모습이었다. 여성도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60년대 이후 보편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혼례의 절차가 단순화되고 장소도 예식장으로 바뀌면서 교배례나 합근례와 같은 혼례의 핵심절차가 서구화되고 그 의미가 상실된 부분이 많지만, 현구고례는 지금까지 페백이란 형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Ⅲ 사진분석을 통해 본 현구고례 복식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진은 총 116점이다(표 1).

26) 忠南振興月報 22號 附錄, 「儀禮規範」(1935), p. 12

27) 김유경(1994), 「옷과 그들」, 서울:삼신각, pp. 243~247.

신부만이 한복을 입은 서구식 혼례의 사진을 자료 수집에 포함한 것은 혼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구고례 예복의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서구식 혼례에 해당하는 26점을 제외한 90점이다. 전통혼례의 교배례에서의 사진은 별도의 현구고례사진이 없는 가정의 것을 수집한 것으로 양쪽의례의 복식이 같았으므로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또한 다만 1999년 이화여대 가정과학부 입학생의 가족사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연대분포가 70년대에 집중된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사진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요목(표 2, 3)은 신랑신부의 예복 중 머리모양을 제외한 관모와 의복으로 하되 조선조 말의 혼례복 전통적 스타일과 그에서 벗어난 부분을 한국복식사 전공자 3인이 예비조사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전통혼례복의 양식은 각종 한국복식사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조선조 말의 혼례복으로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1. 신부복식 분석결과

1) 禮帽: 전체적으로 족두리의 비중이 높다. 60년대까지는 화관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 38.9%를 차지했으나, 70년대에 21.1%, 90년대에 18.2%로 점차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신부 관모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관모 유형	화관	7 38.9	8 21.1	0 0.0	1 7.7	16 18.2
	족두리	11 61.1	30 78.9	19 100.0	12 92.3	72 81.8
계		18 20.5	38 43.2	19 21.6	13 14.8	88 100.0

$\chi^2=10.58^*$ df=3 $^*p<.05$

2) 앞댕기: 60년대까지 앞댕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4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박·은박이나 자수 등의 장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비중도 1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70년대로 들어서면서 앞댕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와 장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두 경우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혼례에는 앞댕기를 하는 것이 규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박 또는 은박을 한 경우는 70년대와 80년대에 비중이 89.5%

<표 5> 신부 앞댕기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앞댕기 유형	장식 없음	2 11.1	1 2.6	0 0.0	0 0.0	3 3.4
	금박 또는 은박	8 44.4	34 89.5	17 89.5	7 53.8	66 75.0
	자수	0 0.0	1 2.6	2 10.5	6 46.2	9 10.2
	없음	8 44.4	2 5.3	0 0.0	0 0.0	10 11.4
	계	18 20.5	38 43.2	19 21.6	13 14.8	88 100.0

$\chi^2=51.51^{***}$ df=9 $^{***}p<.001$

로 높게 나타났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수를 놓은 것은 70년대 이후 점차 비중이 높아져 90년대에는 46.5%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70년대이후 여자 치마 저고리등 일상복이 예복화하면서 금박과 자수 장식이 유행한 것과 같은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땡기의 금·은박: 금·은박을 구별할 수 없는 흑백 사진을 제외하고 칼라사진만을 구분해본 결과 70년대에는 은박의 비중이 37.1%로 상당히 높았으며 이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금박의 경우 비중이 점차 늘어 80년대에는 84.2%까지 높아졌다가 90년대에는 비교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신부 앞댕기 유형과 시대의 관계2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앞댕기 유형	장식 없음		1 2.9	0 0.0	0 0.0	1 1.5
	금박		19 54.3	16 84.2	7 53.8	42 62.7
	은박		13 37.1	1 5.3	0 0.0	14 20.9
	자수		1 2.9	2 10.5	6 46.2	9 13.4
	없음		1 2.9	0 0.0	0 0.0	1 1.5
계			35 52.2	19 28.4	13 19.4	67 100.0

$\chi^2=26.54^{***}$ df=8 $^{***}p<.001$

4) 예복의 종류: 60년대까지는 원삼의 비중이 94.7%로 거의 절대적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녹원삼에 수를 놓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80년대에는 그 비중이 63.2%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활옷의 비중도 늘어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는 61.5%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신부의 예복은 녹원삼에서 수놓은 녹원삼, 활옷으로 변화되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당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신부 예복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부 예복 유형	녹원삼	18 94.7	22 57.9	3 15.8	1 7.7	44 49.4
	녹원삼 +자수	0 0.0	14 36.8	12 63.2	4 30.8	30 33.7
	활옷	0 0.0	1 2.6	3 15.8	8 61.5	12 13.5
	기타	1 5.3	1 2.6	1 5.3	0 0.0	3 3.4
	계	19 21.3	38 42.7	19 21.3	13 14.6	89 100.0

$\chi^2=57.93^{***}$ df=9 $^{***}p<.001$

5) 흉배·보: 襟는 왕실의 전유물로서 반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신부의 혼례복에는 구봉(九鳳) 흉배만을 달 수 있었고 그나마도 그리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진분석 결과에 따르면 60년대까지는 흉배를 착용한 경우가 적은 비중이지만 10.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보를 단 경우의 비중이 5.3%에서 23.1%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8〉 신부 흉배·보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부 흉배· 보의 유형	없음	17 89.5	36 94.7	19 100.0	10 76.9	82 92.1
	흉배	2 10.5	0 0.0	0 0.0	0 0.0	2 2.2
	보	0 0.0	2 5.3	0 0.0	3 23.1	5 5.6
계	19 21.3	38 42.7	19 21.3	13 14.6	89 100.0	

$\chi^2=17.06^*$ df=6 $^{**}p<.01$

6) 원삼의 자수문양: 원삼은 활옷과는 달리 자수를 놓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원삼의 장식은 왕실이나 반가 모두 금박을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는 금박이 없는 원삼을 입어 왔다. 사진 분석결과 60년대까지는 원삼에 자수문양이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94.4%를 차지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자수

문양이 없는 것의 비중이 58.3%에서 90년대에는 20%까지 줄어들면서 점차 장식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수문양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70년대에 주로 이용된 문양은 목단문이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목단문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봉황문과 함께 쓰는 비중이 높아졌다. 목단문과 봉황문을 함께 쓴 경우는 33.3%를 나타냈고, 목단문·봉황문·문자문을 함께 쓰는 경우도 20.0%로 높아졌다. 90년대에는 봉황문의 비중이 높아져 봉황문 단독으로 쓰이거나(20.2%), 목단문과 함께(40.0%) 혹은 목단문·문자문과 함께(20.0%) 사용되었다.

〈표 9〉 원삼의 자수문양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부 원삼 문양 유형	없음	17 94.4	21 58.3	4 26.7	1 20.0	43 58.1
	목단	1 5.6	5 13.9	2 13.3	0 0.0	8 10.8
	봉황	0 0.0	3 8.3	1 6.7	1 20.2	5 6.8
	문자	0 0.0	1 2.8	0 0.0	0 0.0	1 1.4
	목단/ 봉황	0 0.0	4 11.1	5 33.3	2 40.0	11 14.9
	목단/ 문자	0 0.0	0 0.0	0 0.0	0 0.0	0 0.0
	봉황/ 문자	0 0.0	1 2.8	0 0.0	0 0.0	1 1.4
	목단/봉황/ 문자	0 0.0	1 2.8	3 20.0	1 20.0	5 6.8
	계	18 24.3	36 48.6	15 20.3	5 6.8	74 100.0

$\chi^2=29.89^*$ df=18 $^*p<.05$

〈표 10〉 원삼의 목단 자수문양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단 문양	없음	17 94.4	26 72.2	5 33.3	2 40.0	50 67.6
	있음	1 5.6	10 27.8	10 66.7	3 60.0	24 32.4
계	18 24.3	36 48.6	15 20.3	5 6.8	74 100.0	

$\chi^2=16.05^{**}$ df=3 $^{**}p<.01$

〈표 11〉 원삼의 봉황 문양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봉황 문양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없음	18 100.0	27 75.0	6 40.0	1 20.0	52 70.3
	있음	0 0.0	9 25.0	9 60.0	4 80.0	22 29.7
계		18 24.3	36 48.6	15 20.3	5 6.8	74 100.0

$\chi^2=20.63^{***}$ df=3 $^{***}p<.001$

〈표 12〉 원삼의 문자 문양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문자 문양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없음	18 100.0	33 91.7	12 80.0	4 80.0	67 90.5
	있음	0 0.0	3 8.3	3 20.0	1 20.0	7 9.5
계		18 24.3	36 48.6	15 20.3	5 6.8	74 100.0

$\chi^2=4.53$ df=3

7) 대대의 장식: 대대도 원삼과 마찬가지로 자수를 놓지 않으며 장식을 할 경우에는 금박을 한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다. 사진 분석결과도 60년대까지는 장식이 없는 것의 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다. 70년대에는 장식이 없는 것의 비중이 41.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박 또는 은박을 하거나 수를 놓는 등 장식을 가한 것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각각 29.4%로 나타났다. 80년대에는 장식이 없는 것의 비중이 9.1%로 급격히 낮아

〈표 13〉 신부 대대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대대 유형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장식 없음	4 66.7	7 41.2	1 9.1	0 0.0	12 28.6
	금박 은박	2 33.3	5 29.4	3 27.3	0 0.0	10 23.8
	자수	0 0.0	5 29.4	7 63.6	8 100.0	20 47.6
계		6 14.3	17 40.5	11 26.2	8 19.0	42 100.0

$\chi^2=19.40^{**}$ df=6 $^{**}p<.01$

졌다. 이에 비해 수를 놓은 것의 비중이 63.6%로 가장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 들어 관찰된 대대가 모두 수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대의 경우 장식이 없이 단순한 형태에서 점차 금박, 은박을 가하고 수를 놓는 등 장식적으로 변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랑복식 분석결과

1) 관모: 전체적으로 볼 때 紗帽만 착용하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60년대까지는 사모에 복건 등을 밀받침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70.6%를 차지했고, 이후 이러한 착용방식은 크게 줄어들었다. 70년대에는 사모만 착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85.7%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테를 두른 사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80년대에는 11.1%를 차지하는데 이후 90년대에 들면서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90년대에는 그 대신 자색 사모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14〉 신랑 관모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신랑 관모 유형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모	5 29.4	24 85.7	15 83.3	8 66.7	52 69.3
	사모+ 복건 등	12 70.6	2 7.1	1 5.6	0 0.0	15 20.0
	금테 사모	0 0.0	2 7.1	2 11.1	1 8.3	5 6.7
	자색 사모	0 0.0	0 0.0	0 0.0	3 25.0	3 4.0
계		17 22.7	28 37.3	18 24.0	12 16.0	75 100.0

$\chi^2=51.33^{***}$ df=9 $^{***}p<.001$

2) 단령색: 흑백사진을 제외하고 단령의 색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70년대에는 남색의 비중이 가장 높아 80.8%를 차지했으며, 異色의 파이핑으로 장식한 것이나 자색관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령의 깃은 원래 깃과 길에 만나는 부분에는 파이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전통적 양식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파이핑을 장식한 단령의 비중이

약간 늘어났고, 자색의 비중은 크게 늘어 90년대에 50.0%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두루마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모두 단령차림이었다.

〈표 15〉 신랑 예복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랑 예복 유형	남색 관복	0 0.0	21 80.8	12 66.7	4 33.3	37 66.1
	남색+ 파이핑	0 0.0	4 15.4	3 16.7	2 16.7	9 16.1
	자색 관복	0 0.0	1 3.8	2 11.1	6 50.0	9 16.1
	자색+ 파이핑	0 0.0	0 0.0	1 5.6	0 0.0	1 1.8
	계	0 0.0	26 46.4	18 32.1	12 21.4	56 100.0

$\chi^2=16.21^*$ df=6 *p<.05

3) 흉배·보: 70년대까지는 흉배를 역방향으로 단 경우가 비교적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흉배 대신 보를 단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나 신랑의 흉배·보의 유형과 연대는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6〉 신랑 흉배/보의 유형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흉배·보 유형	정방향 학흉배	12 92.3	19 86.4	18 100.0	6 85.7	55 91.7
	역방향 학흉배	1 7.7	3 13.6	0 0.0	0 0.0	4 6.7
	보	0 0.0	0 0.0	0 0.0	1 14.3	1 1.7
	계	13 21.7	22 36.7	18 100.0	7 11.7	60 100.0

$\chi^2=11.09$ df=6

4) 흉배 바탕색: 흑백 사진을 제외하고 단령의 길과 대비되는 색의 흉배를 연대에 따라 분석한 결과 80년대의 사용 비중이 가장 컸다.

5) 양복이 보이는지 여부: 단령안에는 한복일습을 갖추는 것이 바른 착장법이며, 60년대까지 관복

〈표 17〉 신랑 흉배의 색과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흉배색	단령과 동일색	0 0.0	19 73.1	8 44.4	10 83.3	37 66.1
	단령과 보색	0 0.0	7 26.9	10 55.6	2 16.7	19 33.9
계		0 0.0	26 46.4	18 32.1	12 21.4	56 100.0

$\chi^2=5.92$ df=2

안에 양복이 보이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관복 안에 양복이 보이는 경우가 각각 약 72% 정도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은 위에 관복을 걸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로 들어서며 점차 양복이 보이는 경우의 비중(25.0%)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신랑 예복 착용 상태와 시대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랑 예복 착용 상태	양복 보임	0 0.0	21 72.4	13 72.2	3 25.0	37 48.7
	양복 안보임	17 100.0	8 27.6	5 27.8	9 75.0	39 51.3
계		17 22.4	29 38.2	18 23.7	12 15.8	76 100

$\chi^2=29.35^{***}$ df=3

$^{***}p<.001$

6) 신랑 관복과 신부 예복의 관계: 신랑의 관복이 자색일 경우 활옷의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신랑의 관복이 남색일 경우 파이핑 장식이 나타날 때 신부의 예복에서 수놓은 원삼의 비중이, 그리고 신랑 관복에 장식이 없을 경우 역시 장식이 없는 녹원삼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신랑이 남색관복을 입은 경우 신부는 수놓은 녹원삼을 입은 경우(55.6%)가 많았고, 신랑이 파이핑 장식을 한 남 한 남색 관복을 입었을 때 녹원삼의 비중(5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현고구례 예복(1985)

신랑: 異色の 파이핑과 흉배를 한 남색 단령
 신부: 각종 자수의 녹원삼과 대대

<표 19> 신랑 예복과 신부 예복의 관계

관측빈도(건) 열백분율(%)	신랑 예복				계	
	남색 관복	자색 관복	남색+ 파이핑	자색+ 파이핑		
신부 예복	녹원삼	12 33.3	1 11.1	5 55.6	0 0.0	18 32.7
	녹원삼 +자수	20 55.6	0 0.0	3 33.3	0 0.0	23 41.8
	활옷	3 8.3	8 88.9	1 11.1	0 0.0	12 21.8
	기타	1 2.8	0 0.0	0 0.0	1 100.0	2 3.6
계	36 65.6	9 16.4	9 16.4	1 1.8	55 100.0	

$\chi^2=57.52^{***}$ df=9

$^{***}p<.001$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20세기 현고구례와 그 예복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고구례는 혼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친영에 속하는 절차로서 초례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과 함께 매우 중시되었다. 특히 초례부터 합근례의 예식이 간소화되어 함께 치뤄진다 할지라도 현고구례만은 별도로 치뤄왔다. 더욱이 20세기에 들어 서구문화의 영향속에서도 전통의 모습을 나름대로 간직해 왔다.

20세기 초의 각종 예서에 따르면 현고구례의 복식은 초례 때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부

의 예복으로 소의를 입을 것을 권하였지만 사실상 19세기말 부터 이미 남자쌍계에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활옷이나 원삼 등을 착용하였으며 이것마저도 형편에 따라 당의 등의 복식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신랑의 예복은 사모관대라고 불리우는 백관의 상복(常服) 즉, 사모와 단령, 품대, 화였으며 시대에 따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겨울철에는 사모 밑에 이엄 등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이후로는 차차 서구식혼례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대도시에서 성행하였는데, 서구식 혼례라 하더라도 신랑만 양복을 입을 뿐 신부는 흰색 한복에 면사포를 쓰는 차림이 1950~60년대의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1960~70년대부터 점차 신부도 웨딩드레스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혼례도 가정이 아닌 예식장에서 치루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사진 분석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초 부터 예식장에서 현고구례를 드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0년대까지의 전통예복은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고구례시 신부예복은 족두리와 원삼, 신랑예복은 사모와 단령이 대표적이지만 화관의 사용은 오히려 70년대 이전에 비해 줄어든 추세이고, 활옷의 사용은 80년대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복이 변화된 시기는 뚜렷히 1970년대로 나타나며 그 방향은 장식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부의 혼례복 중 활옷은 홍색바탕에 자수가 놓이지만 원삼의 경우는 별도의 장식이 없거나 금박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양식이라면, 70년대이후로는 녹원삼에도 각종 자수를 놓아 화려히 꾸미며, 대대와 땡기까지 자수를 놓은 것이다. 또한 신부의 원삼이나 활옷에 왕실에서만 달 수 있는 보를 착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신랑의 예복도 예외는 아니다. 즉 단령에 이색의 파이핑 장식을 두른다든지, 사모와 금테를 두르는 등의 장식이 나타난다. 올바른 착장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양복위에 단령을 입어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노출되고 양복바지가 보이는 경우도 60년대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70~80년대에는 75%에 가까이 육박한 현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20세기 우리사회가 일제침탈기

와 6.25를 겪고 난후 급격한 서구화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 전통적 의례와 복식에 대한 규범과 인식을 상실하게 되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1960~70년대에는 경제개발과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의례에 대한 조연을 담당하던 마을이나 집안 어른의 역할을 혼례와 관련된 사업자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혼례에 담긴 의미와 전통보다는 상업적 목적에서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복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일상복이었던 한복이 예복화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혼례복에서는 90년대에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활옷이나 자색 단령의 착용의 증가와 같이 그 동안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전통복식의 착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없지 않다.

따라서 20세기를 마감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계승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복식규범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통 양식과 규범, 그 의미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혼례복이란 전통 혼례복이 보(補)나 화려한 자수(刺繡)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반가와 서민 사이에 입혀졌던 혼례복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해 바람직한 전통생활문화와 예복, 의례 규범 등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사업과 각종 전시회 시연회가 더욱 철저한 고증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민속대관」, 1980.
- 고복남, 「근대 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4.
- 김유경, 「옷과 그들」, 서울:삼신각, 1994.
- 김찬주 장인우, 「한국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연구」, 「복식」 제 48호, 한국복식학회, 1999, 11, 5-24.
- 박경자, 「우리나라 혼례복에 관한 일연구—여자 혼례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1968
- 박금주, 「사례편람의 혼례복과 현행 혼례복과의 비교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8.
- 안춘순, A Quantative Approach to the Studies in Historic Costumes Using in the Documentary Evidence, 「한국의류학회지」, 20(1), 76-86, 1996
- 유송옥, 사례복식, 한국문화재보존협회편, 「한국의 복식」, 237-243, 1982.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 忠南振興月報 22號 附錄, 「儀禮規範」, 1935.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3.
- 이순홍, 「韓國傳統 婚姻考」, 학연문화사, 1992.
- 이은주, 「전통의례복식의 변천」,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복식 2천년」, 도서출판 신유 229-238, 1996.
- 인터넷신문 조선일보(www.chosun.com).
- 인터넷신문 동아일보(www.donga.com).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92.
- 최세완·김민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1980년대 이후 한국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993.
- 한국문화재보호협회(편),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관리국, 198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 홍나영(1999),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례복(관·혼·상·제)의 전망과 발전」, 한복입는 날 선포 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복사랑운동협의회.
- Paoletti, Jo B. "Content Analysis of Clothing: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초청강연, 4-28, 1989.
- Tong, Yun Sen, *Chinese Influence on Selected Designers During the Decades 1961-1980*, Master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1984, 진경옥(1997, 2), 「한국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 「복식」, 31호, 101-117.에서 재인용